

## 1. 전시개요

전시제목 | Magique

참여작가 | 공행재, 김재훈, 변대용, 서기열, 유은석, 이재경, 이정윤, 이지수

전시기간 | 2020.12.17 (목) ~ 2021.2.10 (수)

전시장소 | 카린 (구. 갤러리 메르씨엘비스)

관람시간 | 11:00AM ~ 06:00PM, 일, 월 휴무

문의전화 | 051.747.9305

# Magique

2020.12.17 - 2021.02.10

OPENING RECEPTION

: 12.18 FRI 5pm

공행재

김재훈

변대용

서기열

유은석

이재경

이정윤

이지수



## 2. 기획의도

카린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도자기부터 설치작품까지 총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耳をすませば귀를 기울이면'에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원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석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험과 노력,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서 일어난다. 아직 돌맹이와 반짝이는 돌맹이 사이의 물체를 보다 가치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마법, 그것이 바로 원석이 보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팡 ! 터지는 순간의 마술 속에 마법사/작가의 고민과 준비, 수많은 계산과 기술이 켜켜이 레이어로 숨겨져 있다, 한순간의 불빛으로 피어난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이로움이다. 혹독한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마법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의 손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시작해 본다.

## 3. 작업노트

### 변대용

동화적인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나의 작업은 백곰이라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 나의 작품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백곰>이라는 작업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아이스크림이 상징하는 것은 얼음을 대신하는 위로와 위안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인 나는 평소에도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작품의 마감처리를 보면 꼼꼼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어수룩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이다. 대부분 그렇듯이 실수를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을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 간다.

나는 <실수>를 이번 작품에서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다. 실수가 그저 실수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실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다.

## 유은석

대중들의 고착화 된 사고의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체형상의 재질이 사실은 암석이었다.' 라는 설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Contain 은 포함하다, 함유하다, 억누르다, 방지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영단어입니다. 나는 암석화 되어 원석들이 빛나고 있는 스파이더 맨 형상의 어린아이에게 'CONTAIN' 이라는 제목을 부여하여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된 에너지에 대한 메시지를 작업에 내포하였습니다.

취위한 광석들이 실력 있는 보석세공사들의 '마법'에 의해 보석이 되듯,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에게 제공된

## 이정윤

문득 길을 걷다 발견하는 아스팔트 틈에 끼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식물의 지난 이야기를 상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본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모래틈'. 그곳에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상상과 어떤 상황에서도 펼쳐지는 희망과 일상에서의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 일상과 예술의 틈, 과거와 미래의 틈에서 자라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해볼 수 있는 '상상 정원' 을 작가는 상상한다.

# CARIN

C o n t e m p o r a r y   A R T   I N s t i t u t e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2020년 4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 오픈하여 국내외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온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bis를 떼어 내고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Contemporary ART INstitute의 의미를 가진 현대미술연구소 carin카린은 일본 법인 cal.net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예술의 전도자로 역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코리안 아트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세상의 재미난 요소를 지역에 소개하는 다양한 취임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린은 갤러리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예술의 멋진 취임을 지원하고 기업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며 세계에 흐르는 예술의 감각을 고객에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